

구혜선, 안재현 외도 주장 “여배우와 증거 사진 있어”

“염문설 너무 많이 들려와 혼란스러워”



배우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한 가운데 증거 사진을 갖고 있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디스패치 포렌식 결과요? 올해만 핸드폰 세번 바꾼 사람입니다.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

재현씨의 외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귀에 들려와서 저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입장이 왔다갔다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상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웃고있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어요. 그래서 아직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적었다.

이후 구혜선은 추가로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현재 남편 안재현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8월 18일 SNS를 통해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고,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SNS를 통해 안재현과 각각의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혜선은 결혼 생활 위기 속에서도 용종 수술 소식 및 자신의 소설 ‘눈물은 하트 모양’ 수출, 영화제 초청 등의 소식을 알렸다. 이후 지난 1일 SNS를 통해 연예계를 잠정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일 이슈를 일으켰다.

현재 안재현은 MBC 드라마 ‘하저있는 인간들’을 촬영 중이다.

오연서 측 “구혜선 ‘외도 여배우’ 주장 명백한 거짓...강력 대응”

배우 오연서가 함께 드라마를 촬영 중인 안재현의 아내 구혜선의 ‘외도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구혜선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언급한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 및 기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런 추측성 글을 공식적인 SNS에 공개 게재한 구혜선씨에 대해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허위 사실 유포임을 밝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와 관련 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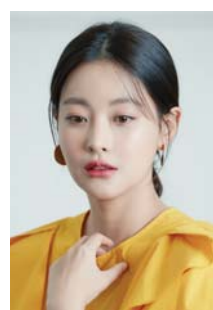
그러면서 “당사 소속 배우인 오연서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이 담긴 드라마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과의)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씨의 외도입니다”라며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귀에 들려와서 저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를 믿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입장이 왔다갔다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상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웃고있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어요. 그래서 아직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며 글을 마무리지었다.

오연서는 현재 안재현과 함께 MBC ‘하저있는 인간들’ 주연으로 캐스팅돼 촬영 중이다.



‘배우’ 김향기, 로맨스도 가능...성숙해진 공감 요정

JTBC 월화드라마 ‘열여덟의 순간’ 서 열연



배우 김향기가 힐링 요정으로 활약하며 훈훈함을 선사했다.

JTBC 월화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은 위태롭고 미숙한 청춘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감성 청춘물로 김향기는 극중 홀로서기를 꿈꾸는 유등생 ‘유수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14회에서 공감 요정 수빈이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스러움이 돋보이는 가운데, 수빈과 준우(옹성우 분)

의 로맨스와 각 인물들의 성장 스토리가 다채롭게 그려지며 알찬 전개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회에서 준우가 준우의 아빠 명준(최재웅 분)에게 상처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수빈은 준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보다가드르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 왔다. 그림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준우에게 멋있다고 말하며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수빈의 따뜻한 마음은 준우뿐만이 아니라 휘영(신승호 분)에게도 이어졌다. 성직조사 사건이 수빈으로 올라오며 조사를 받게 된 휘영은 애써 관참은 척했고, 수빈은 이런 휘영을 걱정하며 안타까워했다.

여기에 풍알 커플의 로맨스도 계속되었다.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수빈이와 준우의 순수함은 미소를 자아냈고,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은 설렘까지 선사했다. 특히 수빈과 준우의 절절한 입맞춤 앵무는 풍알 커플을 향한 응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김향기는 배려 깊은 공감 요정 ‘유수빈’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 옹성우와의 청춘 로맨스까지 소화했다. 스무살을 맞이하며 연기 인생 2막을 시작한 김향기는 더욱 마스해지고 성숙해진 연기와, 김향기만의 사랑스러움으로 매혹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열여덟의 순간’은 매주 월, 화 오후 9시30분 방송되며, 다음 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장성규 “가진 것에 비해 많은 사랑 과분...내 인기는 다 거품”

장성규가 자신의 인기는 거품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JTBC 사옥에서 진행된 JTBC2 ‘호구의 차트’ 제작발표회에서 장성규는 최근 ‘대세’로 떠오른 것에 소감을 전했다.

장성규는 “가진 것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과분하다. 이거 다 거품이고 잠깐이다.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고치지 않는, 여러분의 MC 장성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지는 “장성규가 바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MC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때 나도 생각해주시는 성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으며, 한혜진은 “장성규 라인을 타고 싶다. 최초의 정라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구의 차트’는 더 이상



방송인 장성규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JTBC 사옥에서 열린 JTBC2 ‘호구의 차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호구의 차트’는 넘치는 정보 속 누구나 호구 되기 쉬운 세상에 사는 모든 호구들을 위해 오직 호구 시점으로 정리한 차트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호구가 되지 않기로 한 호구 탈출족, 호구를 자처하고 즐기는 호구 존버족이 세상 모든 호구들을 위한 호구 취향 존중 차트쇼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뉴스1



신지, 무대 공포증에 우울증 치료...“내가 너무 싫었다”

흥성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에 게 이목이 쏠렸다.

3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신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면서 주목받은 것. 이날 방송에서 신지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며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고.

신지는 “노래가 좋아서 가수를 했는데 노래하면서 떨고 있는 내가 너무 싫었다”고 고백했다.

동료 김종민에게는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신지는 “(김종민이) 혼자 힘든 예능을 버티면서 해냈지 않다. 그래서 코요태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